

하늘의 지체를 구하며 살아가라 8

I. 서론

지금까지 전도자는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허무(헤텔)’를 극복하며 살아가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왔다.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가고, 누릴 것 다 누려봤더니 모든 것이 헛됨을, 바람 잡는 것과 같았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배제한 배움은 ()로 전락하고(1:7,8),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쾌락은 ()을 줄 뿐이다(2:1-2). 또한 하나님 없는 수고는 ()일 뿐이고(2:17), 하나님을 배제한 학문은 ()하며(3:1-9, 하나님 없는 삶은 ()적이며(4:2,3), 하나님 없는 종교는 ()만 안겨주고(5:4-7), 하나님 없는 재물은 ()을 유발하고(5:12)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는 ()(11:1-8)을 안겨줄 뿐이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사람의 유일한 본분이라는 것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결코 다 헤아릴 수 없고, 때때로 불합리하며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해 너머’,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만이 헛된 세상에서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 3:11)

12장에서는 ()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유일한 ()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행한대로 ()하실 것을 말하며 전도서를 마무리한다.

II. 본문 :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 (전 12:1-12)

12장에서는 전도서의 서두1:2에 언급한 인생의 ‘헛됨’을 다시 반복하면서(8절) 염세적인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이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도자는 회의주의나 냉소주의,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배후에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

나님의 손길을 확신한다. 전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행복을 누리라 말한다. 전도서는 허무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 듯하면서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하며 그 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1.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12:1-8)

12장은 11장 후반부(11:9-10)에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을 향하여 잠언 형식의 명령으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서 11장에서 젊은 날에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한다. 2-7절까지 하나님을 ()해야 할 이유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수미쌍관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만물의 헛됨을 다시한번 기술한다(8절).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1)

전도자는 청년기와 노년을 대조한다. 청년기는 활기차고 낙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인 반면, 노년은 낙이 없고 죽음에 가까워진 시기이다. 인생 중 힘과 소망이 가장 부푼 황금기에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또한 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를 잃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1)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1a)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낸다.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로서의 젊음의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환락과 행락에 빠질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11:9) 상기시키고 있다.

(2)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1b)

곤고한 날은 원어상 ‘악한 날들(the evil days)’을 뜻하나, 여기서는 인생의 노년에 맞게 될 ‘()’을 의미한다.

(3)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1c)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진다.

2) ‘곤고한 날’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2-6)

(1)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2)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 때 모든 종류의 빛들이 희미해지면서, 삶의 기쁨이 쇠퇴하고 있음을 말한다. 비 온 후에 물려드는 구름의 이미지는 우중충하고 우울한 심리 상태를 한층 더 부각시킨다.

(2)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3)

()가 닥칠 때에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들이 떠는 것은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집’은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몸이 쇠퇴하는 현상에 대한 묘사이다.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에 따라 기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늙음에 따라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는 치아들이 빠짐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유력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도 ()이 어두워져 희미하게 보게 될 것이다.

(3)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4)

폭풍을 예감하고 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치아들도 계속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새의 소리에 일어날 정도로 민감해지며, 잠이 적어 질 것이다. ()들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귀가 어두워질 것이다.

(4)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 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5a)

젊은 시절에는 높은 곳을 두려움 없이 다녔다면, 노년의 때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숨이 차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긴다. 길에서 작은 것을 보고 놀랄 때도 있다. 살구나무에 하얀 꽃이 피듯, 연로함에 따라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하게 된다. 메뚜기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곤충인데, 힘이 쇠약해짐에 따라 그것도 짐으로 여기게 된다. 결국 모든 ()이 사라지게 된다.

(5)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5b)

전도자는 결국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곳에 대하여 ()을 소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쇠약해지고, 영원한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때에 조문객들이 와서 애통해 하며, 죽음을 애도해 준다.

(6)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6)

은줄과 금그릇 역시 젊은 날의 찬란한 때를 상징한다. 그러나 아무리 은줄로 메었다 한들 결국에는 풀리기 마련이고, 금 그릇이라도 깨질 때가 온다. 샘 곁에 있던 항아리가 깨어지고, 우물을 길러 올리던 바퀴(두레박)도 깨짐으로 더 이상 ()인 물을 구할 수 없게 된다.

3)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7)

전도자는 죽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창세기 2:7, 3:19을 상기한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를 붙여넣으셨다. 그러나 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었기에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4) 모든 것이 헛되다(8)

전도자는 1장 2절에서 말했던 것을 수미상관의 수법으로 해 아래의 삶이 헛됨을 다시 언급한다. 헛되고 헛되도다 ().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인생의 허무를 깊이 있게 역설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전도자 자신의 소개(12:9-11)

1) 전도자 자신의 내력(9)

전도자는 자신이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많은 잠언을 저술했다고 밝힌다. 사실 ‘전도자’라는 말은 ()라는 뜻이다. 솔로몬은 많은 잠언을 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많은 이들을 가르쳤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신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본서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다.

(1)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9a)

(2)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9b)

2) 전도자의 말씀의 진실함과 능력(10-11)

먼저 자신이 전한 말이 ()임을 밝힌다(10절). 전도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나 논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임을 밝힌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채찍과 같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1)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10)

전도자의 말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기록하였다. 그의 말은 듣는 자들의 ()이 되는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2)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11a)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도 같다. 잠언(箴言)의 ‘잠’은 경계할 잠, 바늘 잠을 쓴다. 지혜의 말씀은 나태해진 우리의 ()을 찌르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3)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11b)

전도자의 말은 자신의 깊은 묵상과 통찰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에 근거한 것이다. 전도자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최종 산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감에 따른 것이다.

3. 인생의 본분(12:12-14)

전도서의 결론이다. 헛된 세상 속에서 오직 ()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제시한다. 오직 모든 행위에 대해 선악간에 ()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신앙적인 말씀이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인생의 여러 국면이 모순과 부조화 속에 빠져 있을 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인간은 가장 가치있고 즐겁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1)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13)

모든 것을 들었고, 이제 결론이 여기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그의 ()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모든 ()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은 동일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 잠언은 절대 긍정에 찬 희망의 메시지인 반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 모순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 의미있는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다.

2)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14)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 해 아래에서의 ()을 ‘죽음’, ‘영원’, ‘심판’의 개념을 끌어들이 극복하고자 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을 함부로 살 수 없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

아가

I. 서론

아가서는 한 쌍의 남녀가 별이는 섬세한 (), 정열적인 (), 우정, 그리고 기쁨 등 상호간의 신뢰의 탑을 쌓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랑의 감정을 보여준다. 아가서는 일차적으로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 부부간의 ()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중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 9:9)

또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을 결혼에 빗대어 표현한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라 칭하기도 한다.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의 깊고 내밀한 사랑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1. 제목 및 저자

본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쉬림’, () (song of sons), 즉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다.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저술로 받아들인다. 1:1에 솔로몬의 아가라 밝히고 있다.

2. 기록목적

먼저 본서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결혼의 ()을 명시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결혼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된 제도로써 결혼을 통한 남녀간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요, 남녀 서로에게 큰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노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암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3. 주제 및 특징

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녀간에 나누는 사랑의 기쁨’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책은 ()에 기쁨을 노래하는 공식서로 전국에서 낭독되었다.

본서는 많은 상징성과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본서는 본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행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글성경에는 화자(말하는 이)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을 때에 난해한 면이 없지 않다. 솔로몬의 말인지, 술람미 여인의 말인지, 친구들의 말인지 표시해 두면 한결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

4. 구성

전반부(1:1-3:5) :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의 구혼시절

중반부(3:6-5:1) :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결혼시절

후반부(5:2-8:14) :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잠시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가 다시금 성숙하고 ()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노래.

II. 본문

1. 첫 사랑의 그리움(1:1-11)

본서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다. 그런데 솔로몬(셀로모)은 ‘샬롬’ 즉 ‘평강’이라는 의미이며, ‘술람미 여인’은 ‘셀로모의 여성형’으로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샬롬’, 즉 ()이야말로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을 이름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1) 솔로몬의 아가라(1)

본서의 표제, 제목이다.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임을 밝히면서 노래를 시작한다. 이 노래가 최고의 노래인 이유는 노래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왕상 3:12-13) 하나님의 ()을 받은 자가 쓴 노래이기에 최고의 노래, 노래 중의 노래인 것이다.

2) 술람미 여인의 사랑고백(2-7)

(1)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2)

역동적인 어조로 노래가 시작된다. 영어의 표현으로 (NIV,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의 입술로 나에게 키스해주세요) 그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솔로몬을 사모하는 술람미의 갈망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2)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3)

사랑하는 이의 몸에 뿌려진 향유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쏟아진 향유처럼 아름답고 ()을 노래한다. 처녀들은 술람미 여인과 대화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가리킨다. 그 여인들 역시 솔로몬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있는 자들이다.

(3)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4a)

왕이 은밀한 방으로 술람미 여인을 불렀다. 여인은 왕의 종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인도하라. 여인은 그 종을 따라 달려가겠다고 말한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연인과 함께 있고 싶어 서두르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4) 예루살렘 딸들이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5)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솔로몬을 사모하는 여인들에게 말한다. 비록 햇볕에 쬘어서 검게 그을렸지만, 스스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자신있게 노래한다. 계달의 장막과 같이 검은 장막을 두른 것 같지만, 실상 왕의 휘장에 덮여있음을 말한다.
() (Beloved)은 높은 ()을 형성하게 된다.

(5) 내가 햇볕에 쬘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6)

다른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의 검은 피부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다. 술람미 여인은 형제들이라 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표현함으로 거리감을 둔다. 그들이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나, 사랑하는 임 때문에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다.

(6)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7)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으로, ()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여인은 왕의 행적을 알고 싶다. 어디로 가서 양을 돌보는 일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지, 또 어디에서 쉬는지, 그곳을 알아내서 단 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3) 솔로몬의 응답(8-11)

(1) 여인중의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다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8)

8절은 솔로몬의 응답인지,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기에 솔로몬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솔로몬이 있는 곳이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들을 쫓아가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다. 왕은 정답을 알려주면서 술람미 여인이 찾아올 것을 기다린다.

(2)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9)

“내 사랑아” 본서에서 여러번 나오는데, 모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다. 솔로몬 당시에 말은 전부 애굽에서 가져와야 했다. 말의 본산지 애굽에서 최고의 말은 바로 왕의 병거를 이끄는 말들이다. 그만큼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

(3)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꺾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10-11)

술람미 여인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지만, 왕의 여인에 걸맞게 왕이 직접 그녀를 꾸며준다.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 주고, 뺨은 머리털로, 목은 구슬꺾미로 장식해 주고 있다.

4) 계속되는 사랑의 속삭임 (12-17)

(1) 술람미 여인의 고백(12-14)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12)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13)

이제 드디어 왕의 침상에 앉게 되었다. ‘나도’ 향유는 신약에서 ‘나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곳에서 술람미 여인이 바른 나도 향유가 마음껏 향기를 발하고 있다.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2) 솔로몬의 고백(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은 여인의 마음을 무척이나 잘 알았다. 어떤 말을 해야 사랑받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내 사랑아, ()를 알리는 상징적인 동물이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 자기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열렸음을 비둘기 비유를 들어 고백하고 있다.

(3) 술람미 여인의 고백(16-17)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

솔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동일하게 대답한다. 솔로몬의 외모가 ()
으로서 참으로 사랑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둘이서 은밀하게 거할 처소를 묘사
한다. 그들의 침상과 집이 들보, 서까래 모두 최고급 자재로 이루어졌다. 이들 연인이 거
하는 안식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을 드러내고 있다.

2. 무르익는 사랑의 열매(2:1-17)

1)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사랑의 숭고함(1-7)

솔로몬과 솔람미 여인이 주고받는 찬사들이 꽃과 나무의 이미지로 표현된다(1-3절).
솔람미 여인은 자신을 흔한 꽃들 중 하나에 비유함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솔로몬
은 그녀를 단연 두드러지는 존재로 묘사한다.

(1) 솔람미 여인의 고백(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솔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 이며 ‘골짜기의 백합
화’라고 묘사한다. 사론 평지에 가면 수선화가 많이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면 백합
화가 즐비하다. 이것은 평범한 자신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궁화의 영어 이름 Rose of Sharon** : 무궁화는 다함이 없는 꽃이라 해서 대한민국의
국화(國花)이다. 정식 학계 명칭은 히비스커스이나, 보통은 영어로 샤론의 장미라고
부른다. 사론 평지는 대체로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단 하나 조건이 충족될
때에 비옥한 땅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을 때에
샤론평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다.

(2) 솔로몬의 고백(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은 못 가시나무 같은 여인들 중에 홀로 아름답게 피어 있는 백합화처럼 핀
()임을 고백한다.

(3) 솔람미 여인의 고백(3-9)

①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3)

솔로몬의 찬사에 솔람미 여인이 화답한다. 열매 없는 수풀 가운데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가 솔로몬임을 말한다. 솔로몬의 그늘에서 솔람미 여
인은 심히 기뻐하고, 또 달콤함을 즐기고 있다.

②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5)

솔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다.

③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 팔로 나를 안는구나(6)

둘은 함께 누워있다. 왼팔로 머리베개를 해주고, ()로 안아준다.

** 왼팔로 머리를 고인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다는 것을 상징한다. 오른 팔로 안아주는 것은 힘센 팔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신다.

④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7)

함께 잠들었지만, 솔람미 여인이 먼저 일어났다. 솔로몬이 스스로 깨기 전까지 그냥 두고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4) 솔로몬의 고백(10-14)

①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가자(10)

②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1-12)

왕의 ()가 시작되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의 기운을 맞아 약동하는 자연속으로 그녀를 이끌고 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두 개의 동사가 강조된다. 사모의 정으로 인하여 지쳐 있던 여인을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함께 떠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5) 솔람미 여인의 고백(15-17)

①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15)

아름다운 포도원은 ()로 인하여 허물어질 수 있다. 이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작은 오해로 인하여 사랑은 금방 허물어질 수 있다.

** 큰 위기는 오히려 사랑을 견고하게 한다. 사랑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작은 여우. 작은 오해다. 작은 ()이 큰 댐을 무너지게 한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②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16)

이것은 강제적인 속박이 아닌, 지극한 ()에 기초한 자발적인 구속이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